

겨자씨

mustard seed

mustard seed

mustard seed

mustard seed

mustard seed

mustard seed

2022년 여름호

*Summer
Party*

표어 :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목 차



AKPC 겨자씨 문서 선교팀
제 10호 발행일 2022년 7월

주소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전화 : 512-454-1727

팩스 : 512-454-6888

이메일 : akpc@akpc.org

홈페이지 : <http://www.akpc.org>

발행인 : AKPC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편집 : 양민희, 엄두간, 오선주,
이인권, 전해나

칼 럼

03 목사 취임식 답사 / 김상범 목사

05 살맛 나는 세상 / 엄두간 집사

간 증 문

12 일대일 제자 양육 / 손인숙 집사

13 일대일 제자 양육 / 박희주 집사

14 일대일 제자 양육 / 신지민 집사

17 일대일 제자 양육 / 조귀애 집사

19 일대일 제자 양육 / 박근석 집사

20 일대일 제자 양육 / 김송자 집사

21 일대일 제자 양육 / 정희진 집사

22 Car wash / Julie Kim

24 Senior Banquet 2022 / Justin Han

문 화 산 책

31 A Yak in the Classroom / 김상보 장로

교 회 행 사

35 레위기 성경 세미나 / 백인엽

37 새가족 환영회 / 청년부

선 교 통 신

39 페루 선교 / 김성일, 성숙 선교사

41 태국 선교 / 이승현, 윤성휘 선교사

44 에티오피아 선교 / 김명환, 남희수 선교사

46 니카라과 선교

목사 취임식 답사

김상범 목사

존경하는 Joel Moore 노회장 목사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김준섭 담임목사님, 동료 사역자님들, 부족한 저를 부목사로 초대해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 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축하해 주시고자 기꺼이 찾아와 주신 친구들과 동료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세 딸들, 영상으로 함께 기뻐해주실 한국에 계신 노모와 장인, 장모님, 가족 친지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는 주의 종으로 안수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먹먹한 책임감 또한 절감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참 오랜 시간을 통해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주님이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요, 최종 종착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제게 새 기회를 주신 교회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며 저는 다음 세 가지를 항상 가슴속에 담고 사역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성심성의껏 고려하겠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는 친절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자고하지 않고, 더 베풀고, 함께 가는 목회자, 성도님들

과, 제 가족들과, 제 자신에게 까지도 친절한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때로 목회의 길 가운데서 낙망하고 좌절될 때에는오늘 제가 한 이 결심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첫 마음 부여 잡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ECO 교단과, AKPC 교회를 만난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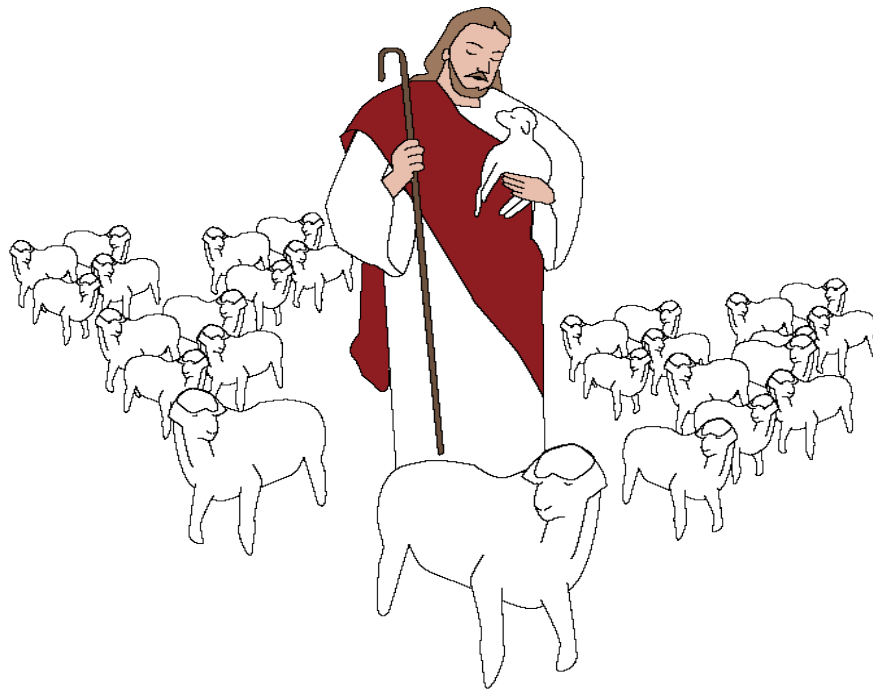
제가 받은 이 축복,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주께서 열어주신 소중한 만남을 더욱 귀하게 키워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 6. 19.

김상범 목사 올림



살맛 나는 세상

업무간 집사

2월 22일 22년, 유난히 2자가 많은 하루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큐티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25-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망대와 전쟁에 대한 본문의 말씀만으로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 생명의 말씀에 나와 있는 도움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듯,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쟁 때 상대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듯,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비용에는 우리 자신의 소유, 명예, 지위,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의 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대하자마자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십수 년을 교회를 다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희생이라는 명제 앞에 우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이타적인 행동들로 가득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살맛 나는 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포괄적 적합도라는 잣대로 세상만사를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진화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타적인 사람들과 이기적인 사람들이 7:5 비율로 섞여 있는 공동체가 존속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 살아야 모든 이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 느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므로 인구도 늘고 역동적으로 살려고 할 것이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세상에 주어진 한정된 리소스를 더 많이 차지하는 무리가 더욱더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보통 이기적인 성향을 띠면 어머니는 이타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대외적으로 다른 무리와 싸워야 할 일이 많은 정치인은 어쩌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희생’이라고 합니다. 배우 이진희 씨가

열연했던 60일 지정 생존자라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비공식 해임 통보를 받아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모두 참여한 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 행사에 홀로 불참 하였던 과학자 출신 환경부 장관이, 국회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이 사망하여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온갖 음모로부터 가족과 나라를 지켜내는 정치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가장 가슴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정치인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대사였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사실이 아닐 수 없지요. 국민을 대외적으로 지켜내고 국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에게는 이기적이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표를 얻어 정치를 하려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어쨌든 한 무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람도 무리 중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니 문외한으로서도 당연히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파하신 설교 말씀에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수히 많지만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씀은 그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제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생존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분 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라져야 마땅할 텐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무수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들끓듯처럼 그 생명력을 더하여 확장되어왔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포괄적 적합도와 예수님이 설파한 사랑 가운데 과연 무엇을 믿고 따라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천대 만대 오래도록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맞지 않게 유독 이타적으로 살기만을 원하시는 것일까

요? 오늘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사색을 잠시 함께해보았으면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수많은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킨 군주들에 대한 이야기 들입니다. 심현정 씨가 출판한 “파란만장 세계사 10대 사건 전말기”에 실린 인류의 역사를 바꾼 10대 사건을 보니 아래와 같은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살라미스 해전: 기원전 480년 9월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 간에 벌어진 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2. 십자군 전쟁: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으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증가하기 시작한 ‘면죄부’의 문제도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군의 탈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남용됨으로 후일 굶아 터진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흑사병: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사상 최악의 범유행으로 성직자와 종교기관의 모순 및 폐해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반교권주의와 개혁적인 목소리가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4. 콘스탄티노플 함락: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당해 동로마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을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축이 유럽에서 오스만제국 중심의 이슬람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합니다.
5. 콜럼버스의 대항해: 15세기 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표류한 이후 유럽의 세계 경제 체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며 부와 인구 증가를 가져다주었지만, 아메리카에는 원주민 인구의 대 소멸을 초래했고 아

프리카에는 노예무역을 통한 막대한 인구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6. 아메리카 원주민 대학살: 1622년에서 1890년 사이에, 미국 백인 정착민(white man)과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 사이의 정복 전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초기부터 아메리칸 인디언과 이주민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열강의 식민지 전쟁과 물리면서 대규모화되어 갔으며, 북미 식민지 전쟁, 인종 청소, 학살 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7.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무너뜨린 후 80년간 공화정, 제정, 군주정으로 국가 체제가 바뀌며 결국 유럽에 민족주의, 자유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8. 트라팔가 해전: 1805년 10월 21일 영국 해군과 프랑스 및 스페인 연합함대가 벌인 전투로, 나폴레옹이 영국에 상륙하여 지상전으로 영국을 점령하려 했던 전쟁인데, 제3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의 일부입니다. 전투의 결과로 프랑스는 영국에 대륙봉쇄령을 내립니다. 이를 어긴 포르투갈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페인의 상황은, 중남미 식민지 국민들에게 우리도 그들처럼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게 됩니다. 결국 아메리카 식민 국가들은 연쇄적으로 독립에 성공했고, 스페인의 국력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9. 제 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입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시작되었고,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프로이센의 비스마르

크, 빌헬름2세등으로 인해 시작된 신제국주의 때문이었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등 4개 주요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유럽 및 서남아시아 지도는 새로운 독립 국가가 생기면서 새롭게 그려지게 되었다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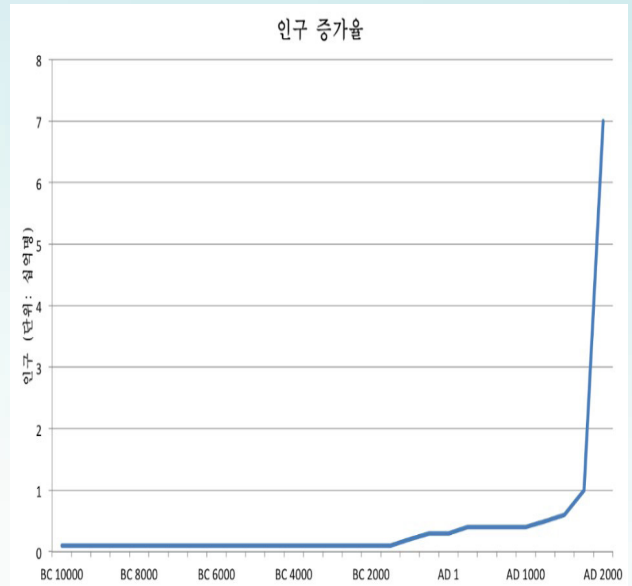
10. 제 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2,194일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형성된 국제 연맹은 유럽의 민족주의 부활과 독일에서 시작된 파시즘의 융성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하며 실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서구권에서는 그동안 사회 주류였던 집단주의 사상이 쇠퇴하고 개인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차 대전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영향은 세계 패권의 중심이 기존의 서유럽에서 새롭게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책에 소개된 10대 사건은 물론 한 개인의 세계관일 수 있지만 인류 역사를 바꾼 10대 사건은 대부분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것은 단 세 개 즉, 흑사병, 콜럼버스의 대항해, 그리고 프랑스 혁명 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프랑스 혁명도 중세 봉건세력과 새로이 떠오르던 신흥 자본 세력 간의 처절한 대립의 결과로 발생한 혁명이라고 보았을 때 전쟁이나 다름없었던 사건입니다. 왜 유독 인간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일까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부족사회에서부터 부족 간 대결과 전쟁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개인적 삶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았을 테지만 유독 인류의 역사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 친구를 구한 이야기나 어머니를 위해 밤새 모기

에게 스스로 뜯겼던 효자의 이야기 등과 같은 이야기를 일일이 기록하였다면 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가 조금은 읽기에 덜 피로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 분량이 과도해질 거라는 것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만한 이타적 이야기는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활동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세상의 판도를 급작스레 바꾼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도를 눈에 띄게 바꾼 일들은 역시 전쟁이나 큰 세력 간의 대립 등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의 질서로 세상이 재편되는 시점에 나타나므로 역사책에 쉽게 기입되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전쟁이 역사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발생한 전쟁들로 변화되고 이어져 왔다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 보았던 ‘소년범죄’라는 드라마에서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대사를 들으며 스스로 아픈 기억들이 많은 탓인지 가슴에 사무치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진화론에서 대두된 자연 선택설도 일단은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확보하여 생명현상을 지속하려는 생명의 기본 메커니즘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 재빨리 취하여 제 것으로 삼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기적인 성향이 생명현상의 본질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혼자 살아남아 결국 타인들이 사라진 황량한 사막에서 온전히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개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타적인 성향이 또한 꼭 필요할 텐데 우리의 본성은 과연 이기와 이타로 그어진 선 어디쯤 존재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이타적이었기에 지구상에는 이토록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과 맥을 같

이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후 세상의 인구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난 12,000년의 시간 동안 세상의 인구는 1억 명이 채 안 되다가 지난 2000년 동안 인구는 갑자기 77억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12,000년 전보다 약 1,860배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프 참조).



예수님의 탄생과 인구의 변화사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프만 놓고 보면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철학, 과학, 기술 문명 등등, 원인을 찾으면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전문가의 무리한 해석으로 혼란스러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오셔서 세상은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와 이타의 외줄 타기에서 이기 쪽으로 너무 편향된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피로 평형을 잡고 나아가 이타적인 성향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세상을 좀 더 살맛 나게 하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는 인류의 심성이 7:4로 이기심이 앞섰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서

서 그나마 이타심이 7이 된 건 아닌가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 여기고 인구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것이 아닐까하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스스로 예수님이 내 생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곰곰 생각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 근원적인 변화가 생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타적으로 변화되어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우나 세상을 살맛나게 이끄는 힘이 나만의 부와 명예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스스로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멀리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살맛 나는 동네, 살맛 나는 공동체에서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예수님을 통해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궁지에 몰리더라도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다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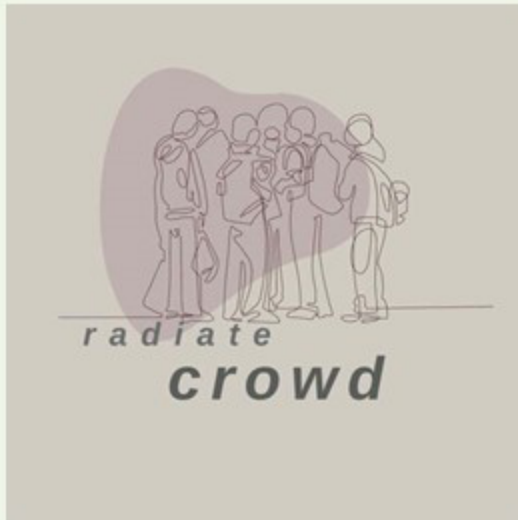
주일학교

영유아부(0-36개월) : 이희정전도사
 유치부(만3-5세) : 곽은희전도사
 유년부(1-5학년) : 이정민목사
 Radiate - 중고등부 : 정태군목사

토요한국학교

교장 : 이성민집사
 교감 : 김효진집사
 교사 :
 유치부 / 초등부

Radiate Youth Ministry - 중고등부



WHAT IS CROWD?

Crowd is a small group gathering led by some of the student leaders at Radiate. We want to simply pause in the middle of a busy and fast-pace weeks to engage in the Word and encourage one another in fellowship. Crowd seeks to foster a deepe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with each other by loving one another in obedience to His greatest commandment. Be sure to click the button below for more info on leaders, time and all the deets!

유년부(CM)

2022년 교육 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유년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시편 119:105

예배시간 11:15 - 12:10 소예배실

성경공부 12:10 - 12:40 각반

찬양대 10:00 - 11:00 아가페룸

찬양팀 10:00 - 11:00 유년부실

기타반A/B 10:00 - 11:00 각반

유치부

2022년 교육 표어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자라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교육 목표

- ♥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자라가요
- ♥ 예수님의 지혜로 믿음이 자라가요
- ♥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가요

10:00 - 한국학교 "한글공부를 배워요"

10:15 - 교사 경건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11:00 - 예배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대표기도 "마음을 모아 기도해요"

말씀선포 "퐁긋퐁긋! 말씀 들어요"

말씀암송 "말씀암송을 배워요"

헌금시간(기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광고시간(환영) "새 친구(생일축하)를 환영해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12:00 - 공과시간 "반 별로 모여요(간식시간)"

12:20 - 귀가지도 "다음주에 또 만나요~!"

영유아부

2022년 교육 표어

- ♥ 하나님을 꼭 닮은 귀염둥이 첫 예배!
- ♥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장 아장 첫 걸음!
- ♥ 말씀과 찬양속에 첫 믿음이 자라나요!

10:00 - 10:45 : 교사 기도회 및 예배 준비

10:45 - 11:00 : 아이들 맞이 하는 시간

11:00 - 11:40 : 예배, 기도, 찬양과 율동

11:40 - 12:00 : 간식 시간 및 Activity

(마지막 주 생일 자녀 축하)

12:00 - 12:20 : 공과 놀이 및 부모님들과 나눔

12:20 - 12:30 : 선생님들과 함께 마무리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

12:30 - : 귀가 시간



손인숙 (2022/03/07)

일대일 양육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져 감사함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대 일이란 말부터 은혜를 주시었습니다." 다수 대 일"이어도 그 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므로 일이 됨을 인하여 "일대일"이란 말이 나와 하나님으로 풀이되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실 것에 감동을 주시었습니다.

ZOOM을 통하여 함께 양육 받는, 나와 하나인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함이 매주 계속되는 가운데 "일대일"에 대해 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대 일" 앞에 일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롬8:5)인, 내가 주인 된, 율법인 나요, 뒤의 일은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입니다. 내 마음 안에 두 주인입니다. 두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표면적 율법 말씀 안에 감추인 이면적 영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어 육신의 생각인 나의 마음 땅을 덮으시고 녹여 주십니다. 둘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휘장을 찢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나의 결사함을 후패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어 깨어나게 하시니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인 된 땅은 점령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인 되신 마음 성전으로 세워주십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하나되게 하사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목, 화평 이뤄주시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강, 자유, 기쁨, 감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되게 하여 주십니다.

보이는 세상과 상황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감추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주목하게 하시고 율법 바다 세상을 영생으로 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판단, 다툼으로 관찰되어지던 나의 마음을 평강, 자유, 기쁨, 감사, 사랑의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될 또 다른 나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일대일 양육 훈련을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과 섬겨주신 훈련위원회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이신 모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박희주 (2022/04/01)

나는 한국에서 이곳 오스틴으로 남편의 발령으로 지난해에 삶의 터전을 옮겨 왔다. 2019년 봄부터 시작된 코비드 팬데믹으로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예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면 예배의 전면 금지되기가 일쑤였고 소그룹 모임은 사회약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팬데믹의 공포는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공중보건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호도하고, 우리의 예배는 가정에서 익숙지 않은 화면으로 드리는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그렇게 2년을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의 본질을 더 깊이 요구하셨다. 그러던 중에 낯선 땅으로 이주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다가섰다. 여기 오스틴, 내가 이사 온 동네는 사람 숫자보다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은 한가롭고 조용한 이곳에서 미국의 삶을 하나씩 배워간다. 모두의 인권이 중해서 서로의 다름을 언급해도 안되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안된단다. 교회의 모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름이 없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강박해지고 예민해 지는가 보다,

일대일 양육을 시작한다는 광고가 반가웠다. 그 즈음에 같이 시작한 가스펠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일대일은 성도간에 더 친밀한 사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팬데믹을 끝낼 즈음에 교회를 들어 쓰실 축복에 통로라 여기면서 기쁘게 참여하게 되었다.

일대일 인도자반은 내가 청년일때 양육받고 큰 은혜를 받아 시작하여 인도자 반을 수료하고 몇번의 보수교육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함께 인도자반을 시작한 30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매주 줌으로 만나게 되었다. 목사님의 인도가 마치 처음으로 일대일을 시작하는 예전의 나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참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이 됐다. 하나씩 확인하고 짚어가고 묻고 찾아보고 듣고 정리해서 적어보고 상대에게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기 까지 지나서 생각해 보니 최근에 누구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하고 사귀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뿐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에 대해서도 나는 깊이 사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자 과정은 내게 두번째 동반자 과정처럼 새롭고 도전이 되었다. 말씀을 의미있게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었고, 설교말씀과 큐티를 적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적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를 양육해 주었던 분, 나에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귀는 기쁨을 알게 하신 1기 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지민 (2022/03/31)

안녕하세요? 저는 AKPC 일대일 양육 인도자반 1기를 수료한 신지민이라고 합니다. 청년시절부터 동반자 2번 인도자 1번, 이번 훈련 까지 합하면 벌써 네번째 일대일 제자 양육 훈련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매번같은책거의같은본문으로양육훈련을받았지만늘항상새로운말씀과도전이저의마음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기 불과 몇개월전에 저희 가정은 남편의 직장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오스틴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낯선 땅에서 아직은 낯선 지체들과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도 못한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는 생각했던것 이상의 상당한 충격으로 저의 삶을 흔들여 놓았습니다. 외로움, 원인모를 공허함들이 점점 마음속을 점령해 나갔고, 나중에는 삶의 우선순위까지 흔들리는 사태에 이르렀던것 같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마음들을 겨우 붙들고 있었을 무렵, 하나님은 로마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열어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대일 제자양육 인도자반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료했을때 마다 나의 신앙관과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에너지를 부어주었던 그 일대일 제자 양육을 드디어 시작한다니! 이번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너무나 반갑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이끌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꼭 필요한 때에 꼭 나에게 맞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그를전파하며각사람을권하고모든지혜로각사람을가르침은각사람을그리스도안에서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28

오리엔테이션 당시 일대일 제자양육의 중심 구절을 나눠주시며, 일대일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사역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나누며그로인해서로의인격과삶이온전하여진다는그내용이나의온전하지못한모습과너무나 대조가 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과 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망의 첫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계신지 함께 배우고 묵상해가며 다시한번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TESTIMONY

서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 덕분에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훈련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오히려 다시한번 그 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나의 영혼과 마음이 온전할 수 있음을, 그분만이 나의 힘이되신다는 것을 이순간 다시한번 고백합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키그림을 기준으로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총 11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각각 저에게 부여하셨던 은혜를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두 나누고 싶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일곱 번째 만남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충만함을 주시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목표인 영화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삶속에서 시험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과 갈등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하며, 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속적인 간구,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끄럽지만 간단히 저의 삶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생각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지나칠 정도로 그 생각 자체에 몇 일동안이나 몰두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에 잠겨있을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주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보통 이러한 상황은 제가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의 주제와 연결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하는데, 교만함으로 뿔뿔 뭉쳐 그저 생각하고 걱정이나 하고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탄탄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었고, 나만의 생각들에 사로잡힐때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성령충만을 간구하여 그 온전치 못함 에서 속히 벗어나야 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문제들을 들고 저만의 생각속으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더 나아가 나의 전반적인 생활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니,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그자리를 지켜준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우리 예쁜 두 아들들, 외로웠던 팬데믹 기간동안 옆에서 삶을 나눠줬던 소중한 친구들, 안정된 직장, 필요할때마다 몇마디 위로의 말들을 주었던 교회 지체들 ... 뒤돌아보면 그리 나쁘지 않았던 어스틴 생활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그래오셨던것처럼, 하나님은 제가 약해있을때 여러가지 경로로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시는것을 이 간증 문을 쓰는 바로 이 순간에도 경험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

님을 알아 가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함으로, 나의 인격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분명히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을 마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셨고, 낮은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더이상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도전이 저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어리숙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저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속사람이 예수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귀애 (2022/04/04)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스틴으로 이사를 하고 6개월이 좀 지났지만, 집과 주변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사춘기 세 아이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보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던 저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나의 교회, 우리 가족의 교회로 빨리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과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조모일 때 제가 나눈 큐티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마르다와 같이 제 스스로가 나열해 놓은 행위로 인해 분주하기만 하고 진정 마음에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회개하고 말씀의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큐티는 바쁘다고만 생각한 제 일상을 두고 과연 내가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던 고민과 두려움을 접을 수 있게 해 준 시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재를 펴서 한 과씩 해 나가면서 4년 전에 이 과정을 받을 때와 너무도 달라져 있는 내 지식과 믿음의 성장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의 일상에서는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했고, 기도 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즉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익숙지 않아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고 그때만 해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좋은 성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긴 대화에서 하나님께 조르기도, 다그치기도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도 생겼습니다. 솔직히 세상 것을 위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람 부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함께하면서 다시 제 중심에 하나님이 놓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 지식과 믿음의 퍼즐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 정리가 되고 선명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시간을 함께 공부하며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처럼 제 안에 중심되신 하나님께서 단 1초도 쉬지 않으시면서, 티끌 하나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신실하시게 일하신다는 확실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일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올리던 제 기도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도의 마무리는 “내 모든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제 삶에 중심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큰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박근석 (청년부)

저는 자주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주님 닮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으로 양육 받고, 말씀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야지" 생각했지만 현실은 퇴근하면 피곤하여 밥먹고 눕기 바쁜 직장인이며, 제 몸 하나 제대로 케어하기 힘든 존재 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선 올해 20년째, 그리고 청년부에선 11년째 예배 드리면서 여러 많은 섬김의 자리와 좋은 목회 자님들로 부터 많은 양육들을 받아 왔습니다.

여러 섬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자양육 훈련에 관심이 많았고 기도와 고민끝에 사인업이 끝나기 하루전에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번 제자양육 기간은 저와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시간이였습니다. 저희 교회 최초로 청년부,EM,장년부가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6주에 걸친 기간동안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위해 필요한 8가지를 배우면서 제 신앙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였고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수 있는지 알아가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성경읽기와 QT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좀더 가깝고 깊게 관찰하는 시간이였고, 또한 골로세서1:28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더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였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말은 야생마일 뿐이지만 훈련 받은 말은 한 주인의 훌륭한 명마로 거듭나듯이 저 또한 주님께 매달려 매일의 삶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남은 인생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제자양육 받을 그 분과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 가는 제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분과 혼자서 제자양육을 한다는 것에 살짝 걱정도 들지만 그 동반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 지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16: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잘것 없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제자양육에서 배운 그대로 제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몇년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송자 (2022/04/03)

먼저 일대일제자양육 인도자반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주부터 시작된 과정은 자연스러우면서 점점 강도가 높아져가는 것을 느꼈다. 과정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주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라는 목표를 세우고 함께 가자 공표하시니,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동참한다는 것에 뜻을 두자 생각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재를 읽고 빈칸에 답을 적고, 특히 ZOOM으로 진행되는 대충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 허를 찌르는 돌발질문, 교재에도 없는 질문을 불쑥하셨다. 허리띠를 풀고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매주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교육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목사, 목녀, 리더자가 참여하셨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대단하셨다. 그런반면 나는 2주차부터 과제를 하기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긴 시간 동안 리더자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답해보고 하니 이틀을 온전히 사용했다. 일대일제자양육시간 중에 2조로 모인 우리 조별 나눔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다. 같은 말씀으로 QT 하며,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며 적용하는 모습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박희주 집사님의 나눔은 매시간 큰 은혜를 끼쳤다. 생명의 삶과, 주일 말씀과 일대일제자양육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 내 안에 반복되는 말씀의 흐름과 인도하심이 내 속에 채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일대일 제자양육 다섯 번째 교재 부분의 말씀을 들을 때면 나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며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부흥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교를 체험하는 것이라 한다. 내 안의 나는 사랑이 부족함을 느낀다. 머리로는 이해되나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행되기까지는 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 나의 손가락 하나는 타인을 가리키고 있다. 그 손가락 하나마저 긍정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며 구별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야겠다. 일대일제자양육을 위해 섬겨주신 김준섭 담임목사님과 교육, 훈련팀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몸 세포 하나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데 나의 중년의 삶을 드러보자. AKPC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진행형이니까 ~ 나도 진행형인거야~



일대일 양육 간증문



이름: 정 희진

작성일: 2022년 4월 5일

일대일 양육과정 중 은혜로 왔던 점과 양육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 등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해 주세요

언뜻 보면 장로 교회에 뭉치고 신앙생활을 한지 20년만에 일대일 양육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성경공부 프로그램과 양육과정이 있었지만 오래전 경험했던 일대일 양육으로 저의 현재 영적 상태와 믿음 습관을 점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소그룹에서 주일학교와 QT를 나누고 말씀구절을 암송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중보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같은 설교, 같은 말씀으로 모든 조원들이 다른 은혜를 받고 각각의 삶 가운데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과제는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의 자기소개서로 나를 소개하고 신앙 배경을 조원들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던 감격스러운 순간, 뜨거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짓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일대일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시작으로 한 주 한 주 양육이 진행될수록 과제는 늘어만 갔고 수요일은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신기한 정도였습니다. 이번 양육과정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삶 가운데서 항상 가졌던 의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기치며 살지 못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온세게 지키고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가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양육기간 동안 저에게 몇 번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 중이신 아버지께 고백이 있었고 사춘기인 아들과 크고 작은 충돌 그리고 건강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꿈꾸며 시작했던 이 시간을 사탄이 개간히 돌리가 없습니다. 그걸수록 말씀에 더욱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터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하찮은 지식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동반자에 대한 간절함과

* 이 양식의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종이에 계속 기록해 주세요 사랑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AKPC 일대일 훈련위원회

과정 가운데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TESTIMONY

Car Wash Testimony

Julie Kim

On April 16, 2022, Lifeway Ministry had the opportunity to host a church-wide car wash event to support one of our local homeless ministries, Micah 6. We decided to partner with this organization for two primary reasons: First, Micah 6 has historically had a partnership with the college ministry, Crossroads, and we wanted to continue building this connection. Secondly, our outreach team had a heart to serve the homeless community specifically, and we knew this was one of the organizations that has been serving and advocating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downtown Austin area to help meet one's most basic needs for food and sustenance.

For some context, Micah 6 of Austin is a foundation that serves the at-risk and homeless community based on the following verse: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do justice,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The outreach team was humbled by the opportunity to join the Micah 6 community and help out in a small way by providing a financial donation raised by the car wash event.

As is always with the gift with God, our Lifeway community received more than we gave by participating in this donation effort. The original goal we had deemed lofty (\$1500) was exceeded by double, and we were able to raise over \$3800. This was due to the generosity of our AKPC community, where many folks donated more than the cost of the car wash ticket, and showcased the power of unity.

Furthermore, given the car wash was done with the help of volunteers, this event provided an amazing opportunity for the Lifeway community to get connected and rub shoulders with people one may not speak to on a regular basis. The event showcased how there truly is no better way to get close to one another other than serving together for a mission bigger than ourselves.

Overall, the car wash event taught and gave us the opportunity to learn what it means to

TESTIMONY

compassionately partake in a community that is broader than ourselves. I personally learned and saw the beauty of attaining a mission that is done in community, rather than solo, and the infectious positive power of serving in unison. We are grateful for the broader AKPC community for their partnership and participation,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partnership of service with the broader Austin communities!

TESTIMONY





Senior Banquet 2022: What's Next?

By Justin Han

At around the end of the month of April, our servant leader team was first notified that we had a month to prepare the Senior Banquet, which would happen on May 28th. For anyone that doesn't know what the Senior Banquet is, it is an annual event to celebrate the presence of the graduating seniors and wish them a farewell as they move on from our youth group into the next parts of their lives. Commonly, the team prepares voluntary speeches and performances from the seniors' family and friends. Even with such a time crunch, our team was able to successfully prepare and execute the event to make sure the seniors were given a proper farewell.



SENIOR BANQUET 2022

Our theme for this year's Senior Banquet was "What's Next?" As the chapters of their lives unfolded, we wanted the seniors to remember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God, as God has gotten them through the seemingly impossible before, so that they may stand firm through the struggles and ask God, "What's Next" in their lives. The decorations and gifts were based on photo albums, each containing great memories that God gave them so that they may have reassurance that God will continue to make great memories in the future.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preparing the Senior Banquet was having meetings. In previous years, the planning team had about 4-5 months to prepare the banquet, giving enough time to generate ideas and gather performances and speeches. Not this year. With only the whole month of May to prepare, our team was under a great time crunch. Our whole preparation team was filled with high schoolers, meaning that we were already busy with studying for AP exams, finals, etc. Due to this, we had to set 1 on 1 meetings with each person that was going to help prepare and even had to come in during finals week to finish our responsibilities.

To get a start, we created teams, each team with a leader to help keep the members in check. Our teams were split into decoration, performance/speech, praise, media, MCs(host and hostess), and skit, with the leaders being Hannah Lee, Noa Kim, Justin Han(me), Jayce Oh, Aimee Wang and Hanuel Lim(host and hostess), and June Kim, accordingly. As leaders, we all created ideas – with input from

other helping servants leaders – for our theme, decorations, and itinerary to build a foundation to work off of. From there, we split into our teams, focusing on each of our responsibilities.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many of our leaders helped prepare for this event. Last year, the main pioneers for the 2021 Senior Banquet were Sumin Yeo and Soobeen Ahn, but Soobeen was a graduating senior this year and Sumin had a huge upcoming jaw surgery and was unable to help us a lot, so we had no prior experiences. Especially with the time we were given during what’s called “finals



season,” we almost had no time at all to work on the banquet planning. Personally, this was one of the most stressful times of my life. Especially being one of the main coordinators, as I was constantly being asked questions about the technical side of the banquet by each person individually, as our team was unable to have a meeting with everyone. I would be brainstorming ideas nearly everywhere, as the banquet itself was constantly on my mind. There was a constant anxiety that our team might forget something or that it may not go as planned.

Yet one component that allowed us to work so efficiently was our constant communication and sacrifice. Even though the team rarely had time to help, the leaders constantly asked one another where they could help or even when they needed help or clarification. For example, our performance and skit leader, Noa Kim, had a very easy task of gathering a list of names of people who wanted to perform a song or give a speech. Since Noa didn’t have a lot to do, he played drums for our praise team (as we were missing a drummer), helped make decorations, and assisted in creating an outline for the decorations and setting of the banquet. There was almost never a time in our working that one of the leaders would be sitting around doing nothing, as we each understood the time crunch we were put under.

The most tiring time was during finals week. Not only were all of us having to do finals, but this week was the last week we had to fix up anything and also prepare the decorations ourselves. The decorations could not be set prior to this Sunday as the Lifeway Ministry held service in this room on Sundays. Yet I remember the constant sacrifice our team had, seeing them on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working hard on the decorations.

The banquet itself was amazing, yet tiring. I remember constantly runn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media team, MCs and PTA during speeches and performances to make sure that everyone during the banquet was coordinated and that we stayed on track with the itinerary. Leaders and other helpers were



constantly running back and forth, sending messages from person to person to make sure everyone was on the same page. It was exhausting, yet the food was great, performances and speeches were so meaningful and the decorations did not disappoint at all. Everything surprisingly went according to plan, and the anxiety was relieved off of our shoulders.

In conclusion, I want to give thanks to everyone that helped. I want to thank each leader, for fulfilling their own tasks and supporting the weight of one another. I want to thank the graduating class of 2022 too, for being with our youth group and helping make the youth group fun. I want to thank each of my praise team members(Hannah Lee, Anna Cho, James Lee, June Kim, Noa Kim) and media team members(Jayce Oh, Eddy Kim) for being able to come to each practice, making the praise great and even helping with other aspects of the banquet outside of praise even when they weren't told to. I also want to thank the MCs(Aimee Wang and Hanuel Lim) for constantly working on the script and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and me and especially guiding the crowd through the banquet and being flexible with the constant changes we made. I also thank the people that provided a performance and speech(Nathan Kim, Melodie Song, Eric Yang, Aiden Ahn, Elder Min, Aimee Wang, Praise Team), which were each so meaningful and funny. The skit team editor, Benjamin Schuler, was also a great contributor, as he stayed up late at night to put the recorded clips together to make an amazing skit. Also, I want to thank Mr. Deir Mon, Pastor Peter Jung(youth pastor), and my school friend Anujram Ganesh for helping me and the rest of the team make the banquet happen, even when no one told you to do so. They constantly motivated us as a team to work and make this banquet amazing, even when no one told them to. Here are first hand experiences with the banquet from our other leaders:

“The toughest part of preparing for the senior banquet was probably trying to get people to do a performance, because a lot of people seemed too shy or didn’t want to do one. The best part about preparing the senior banquet was getting to see everything come together; like the backdrop, tables, and decorations. A person I want to thank has got to be Deir, because he just did so much for the banquet. He bought the materials, came out to church for hours, made decorations, etc.”

- Noa Kim(performance/speech leader)

“One difficulty I experienced was leading by myself. This was my first time leading/helping for a senior banquet so I felt really inexperienced and I’m very indecisive so making the decisions was difficult for me. I enjoyed being able to get closer to everyone who helped with the senior banquet. I feel like we created a close bond and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People I want to thank are Deir, Noa, and Justin. They all did so much to help me with decorations and made sure the senior banquet went well.”

- Hannah Lee(decoration leader)

“One difficulty I had as the media team leader preparing for the senior banquet was collecting photos for the seniors. I needed the parents to send me the baby and current pictures of their seniors but it wa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e parents to send it in, taking multiple tries. One thing I enjoyed while preparing for the senior banquet was making the slides and working the sound booth in general as that is what I am good at and enjoy. I would like to thank Eddy Kim for giving me a helping hand in the booth.”

- Jayce Oh(media leader)

“Preparing for the senior banquet gave me a lot of doubts. I usually never have a role in serving as large as this one so I was worried about creating a ‘perfect’ banquet that people would enjoy and would be stressed when many aspects were still unprepared. However, through watching the radiate leaders serve, I realized the only people we were preparing the banquet for were the seniors and God. it didn’t matter how perfect everything had to be as long as it came from our hearts and our desire to serve them. fulfilling shallow reasons to serve will only result in an emptiness and after I realized this, I was reminded of the reason God gave me this role. I really enjoyed not only participating in the banquet but watching how humbly everyone served and how close our members are. However, the one person I want to thank the most is Deir. Everyone worked hard on the banquet but deir was there day and night. He never once complained, even while carrying large bookshelves and sweating all by himself (haha) and was so incredibly humble in his servitude. I remember people thanking him but he said he couldn’t take any credit for God working through him. Watching somebody this willing to serve and so hardworking and selfless made me admire not only deir but also God. that God placed someone like deir in our ministry to serve His kingdom but also to give me somebody to look up to.”

- Aimee Wang(English MC)

“One difficulty I experienced preparing for the senior banquet was planning, as the skit was roughly planned and it was hard to gather all the members to record the scenes. However, we were still able to film everything, producing a satisfying end product that was both entertaining and nostalgic for

the seniors. I really enjoyed working alongside such talented members who were willing to come and sacrifice their own free time to record the scenes, though it was at times rocky and difficult, it was still a fun process to work alongside such passionate coworkers. I truly wish to thank my coworker Ben Schuler who put in the time and effort to not only help direct the entire project, but to also edit all the scenes within a small span of time. He had a large part in the team, and I believe the skit couldn't have happened without him."

- June Kim(skit leader)

"Even though I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y preparing for the banquet because I felt lik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prepare, one thing I enjoyed was writing the scripts. I want to thank Deir for putting a lot of effort in preparing for the banquet."

- Hanuel Lim(Korean MC)

And lastly, I want to give thanks to God for providing all of these wonderful people. I want, not only the seniors, but also our entire team to remember this. Even though preparing a senior banquet in a month with nearly no prior experience seemed impossible, God has proven that it was possible. Only through God were we able to make this happen. On the wednesday before the banquet, Noa and I had met up with two of our old Bible study teachers in our youth group(Joshua Choi and Paul Choi). One thing they told us was that if we wanted to make our actions fruitful, we must first find a God worth worshipping, and they asked us "Who is the God you worship?" This banquet helped me realize that our God is a God that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God is the one that comes through, even when it seems there's no way, God makes a way, constantly providing through the people around you. So as we all move on to the next chapters of our life, know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stand firm and continue to ask God "What's Next?"

Pictures: <https://photos.app.goo.gl/marZdMHwzWMf3AM36>

문화산책

김상보 장르

Lunana: A Yak in the Classroom <G> 2019 Drama/Family 1h 50m



이 영화는 관객이 현혹될 만큼 단순하지만 고향과 타향을 문자 그대로 혹은 감정적으로 깊게 살펴보며 내가 속해 있는 곳과 어딘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잘 풀어내어 줍니다. 사실 슬픔과 기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스토리를 끌고 가는 영화가 흔치 않은데 적은 자본과 열악한 벽촌의 로케이션, 그리고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 “교실 안의 야크” (Dzongkha) 소개해 드립니다. 필자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던 선교여행들과 맞물려 쉽게 동화되었고 어렸을 적에 한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낯선 곳으로 이민을 했던 기억 또한 이 영화와 어울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지수 1위 은둔의 나라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 신임교사로 일하는 유겐은 교사가 영 적성에 맞지 않는다.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유겐은 이런 촌구석이 싫고 멋진 호주로의 이민을 꿈꾸고 있지만 부탄 교육부에서는 그를 인구 56명에 불과한 전 세계에서 가장 외딴 벽지학교로 전근시키며 5년 계약 중 남은 근무 기간 1년을 겨울이 오기 전까지 채우도록 권유한다. 유겐은 선생님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 호주로 가서 가수가 되는 꿈을 접지 못하고 있었고 차근차근 퇴직과 이민을 준비하던 차, 그는 원치 않게 루나나라는 벽지로 전근을 가게 된다. 버스가 끊어지는 가사라는 도시까지 이틀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해발 4,800m 히말라야 등반을 6~7일 해야 도착하는 루나라는 인구 56명의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외딴 벽지학교이다. 이틀이 걸려 가사에 도착한 유겐은 그를 기다리는 미첼을 만나게 된다. 루나나에서 선생님 혼자 오시기에 너무 힘들 것이고 마을에 필요한 물품 또한 구입하는 임무로 나타난 미첼은 유겐을 깡뚫이 대한다. 물길을 따라 기가 막힌 풍경을 관람하며 쉬엄쉬엄 가면 된다는 미첼의 말에 용기를 내어 걷기 시작하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길에 유겐은 짜증을 내고 후회막급이다. 더 이상 가는 길에 인가조차 없어 야영하며 길을 가는 미첼은 별 나이 차도 나보이지 않는 유겐을 계속해서 깡뚫이 대하자 유겐은 편하게 대하라고 하지만 미첼은 말한다. 선생님이시라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유겐은 피식 웃지만 미첼은 “선생님이란 미래를 어루만지는 분”이라 들었다고 하며 유겐의 마음에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킨다. 미래는 무슨, 내 미래도 잘 모르겠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무렵 멀리서 한 무리의 인파를 보는데 미첼은 훌륭한 선생님이 마을을 찾아 어려운 길을 오시니 마중 나와 있는 것이라 전하고 마을 촌장님 또한 극진히 유겐을 대한다. 촌장의 안내에 따라 먼저 학교를 둘러본 유겐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당연히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오래 방치되었

던지 교실은 먼지투성이고 칠판도 없고 마굿간인지 교실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원래 원하지도 않은 자리였고 전기도 휴지도 없는 이런 벽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유겐은 도착한 그날 촌장과 미첼에게 못하겠고 돌아가겠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미첼은 물건을 나르는 당나귀가 좀 쉬어야 하니 며칠만 기다려 주면 돌아갈 준비를 하겠다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대답한다. 추위와 싸우며 하룻밤을 보낸 다음날 팸잠이라는 아이가 찾아온다. 팸잠은 자기가 Class Captain, 즉 반장이며 선생님이 오지 않으셔서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전한다. 서둘러 교실로 찾아간 유겐은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들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린다. 문명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이곳의 아이들은 선생님만이 유일한 바깥과의 통로이며 자신들의 미래를 어루만져 주실 분이라 기대와 존경이 대단한 모양이다. 그토록 불우한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팸잠과 종이도 연필도 없이 교실에 모여 자신만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망울을 본 유겐은 다시 한번 ‘미래를 어루만지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다시 들여다본다. 결국 유겐은 마음을 돌리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심하고 그걸 들은 촌장과 미첼 역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드린다.



다음날부터 유겐은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준비를 한다. 미첼에게 부탁하여 칠판을 만들게 하고 아이들의 필기구를 장만하고 다 떨어진 종이를 위해 교실

창호지까지 뜯어내어 아이들에게 준다. 그는 나뭇잎으로 용무를 보고 야크의 배설물로 불을 피우는 방법을 배운다. 기타를 치며 알파벳과 산수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가지만, 겨울이 오면 떠난다는 유겐의 말에 아이들은 슬퍼한다. 특히 반장 팸잠은 혼자 남아 유겐에게 묻는다. “혹시… 저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유겐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팸잠의 슬픈 눈망울은 유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던 중 어디서 들리는 묘한 노랫가락에 이끌려 산등성으로 간 유겐은 이웃 마을 촌장의 딸 살돈을 만난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은 유겐은 부탄의 옛 노랫가락이 맘에 들었고 살돈에게 자기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날 이후 매일 만나 노래를 배웠던 유겐에게 이 노래는 Yak Lebi Chadar 라고 하는 노래이며 어느 야크 물이꾼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야크를 마을을 위해 바치던 날 야크에게 미안하고 슬퍼서 부른 노래라고 전한다. 그리고 살돈이 어느 날 늙은 야크를 한 마리 데리고 온다. 불을 피우기 위해 쓰는 야크 배설물을 주으러 다니지 말고 노르부라고 하는 이 늙은 야크를 추우니까 교실 안에서 키우고 배설물이 필요한 만큼 먹이를 주면 된다고 한다.



이윽고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유겐은 떠날 준비를 하며 미첸은 눈이 녹은 봄에 다시 와달라 부탁하지만, 유겐은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실 거라 말한다. 하지만 살돈은 아이들만이 누가 좋은 선생님이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살돈은 언젠가 다시

만나 야크 목동의 노래를 들려 달라고 하고 유겐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며 팸잠이 준비한 아이들의 마음을 모은 편지를 전달받고서 발걸음을 옮기는 유겐 뒤로 멀리서 살돈이 아닌 누군가의 Yak Lebi Lhadar, 즉 야크 목동의 노래가 들린다.



이 영화의 감독인 파우 초이닝 도르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라고 불리는 부탄의 가장 외진 곳으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해발 4,800미터에 56명의 인구에 불과한 아주 작은 마을 루나나에는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에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영화는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부탄을 배경으로, 도시의 삶에 익숙한 한 남성이 낯선 오지 마을에서 행복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실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루나나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촬영했으며 아름다운 목동의 노래, 아이들의 천진함과 주민들의 순수함,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영혼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실제 스크린 밖으로 터져 나올 듯한 히말라야 오지 풍광은 등장인물들을 압도합니다. 구름 아래 만년설로 덮인 장대한 산과 하늘, 무공해 청정국가 부탄의 아름다운 자연과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눈망울이 보는 이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이 영화는 다큐인지 극영화인지 모를 정도로 실제 인물과 가까운 배우들, 유겐 역의 세랍 오르지는 실제 호주 이민을 꿈꿨던 가수였고 그와 함께 여정을 소화한 야크 물이꾼 미첸 (유겐 노르부 렌덱)도 배우가 아니라 원래 가

수라고 합니다. 영화 속엔 실제 루나나 주민도 많이 등장합니다. 고기, 가죽, 우유, 불 등 모든 것을 주는 야크에게 감사하고 자연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의지, 순수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자연 풍경은 코로나 블루로 힘든 관객들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또한 감독은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나라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지만 부탄의 젊은이들은 자꾸 외국으로 나간다”는 대사를 보면 부탄의 현재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마을, 높은 교육열에 비해 처참한 인프라, 온난화로 사라지는 만년설 등 세계 1위 행복 국가 부탄의 그늘도 보여줍니다. 영화는 유겐이 그에게 관심 기울이는 사람 하나 없던 술집에서 하던 노래를 멈추고 갑자기 루나나 사람들에게서 배운 목동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납니다. “몇 번의 삶을 살아서라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라”는 가사가 유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유겐도 세상이라는 교실에서 살다가 결국 행복을 찾아 돌아오는 한 마리의 야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실 안의 야크는 바로 유겐 자신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외딴 벽지 학교로 간 철부지 교사의 성장기가 청아하게 공기 속으로 퍼지는 담백한 목동의 노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마치 미래를 어루만지는 선생님의 마음처럼.

숨이 막힐 듯한 자연의 경관을 보여주며 이 영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문명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만의 진솔한 정과 친절함, 서

로 간의 경외심과 온 마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야말로 유겐의 마음을 진정한 선생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닐까 합니다. 이 마을은 앞으로도 별 변화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선생님의 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Uvalde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루만져 주신 옛 스승님들, 이 세상 모든 선생님께 청정 무공해 영화 “교실 안의 야크”를 진정한 존경을 표하며 바칩니다.





교회 행사

성경 세미나

레위기 성경 세미나

호렘 목장 백인엽

올해도 연초에 시작한 성경 1독 과정 중에 레위기는 가장 처음 맞이하는 고비였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구절들과 제사의 자세한 규정들을 나열한 레위기를 빠르게 주파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 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레위기 '읽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성도들이 깊이 있게 레위기를 이해하기는 시간과 여건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김경열 목사님을 통해 레위기 특강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레위기를 공부하셔서 학위를 받으셨고 레위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레위기를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섯 번으로 이루어진 강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사의 형식을 지켜 하나님께 제사해(예배) 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가지 다양한 제사의 종류, 각 제사들의 목적과 그 제사들의 형식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 속죄와 하나님 찬양을 위한 수직적인 제사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수평적인 화목의 제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이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던 제사의 과정에 대한 구절들도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 다 조금씩 다르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나 또는 제사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제사 방법, 제물을 정해주시고 제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에 관한 강의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물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던 리더들은 소처럼 비싸고 큰 제물을 바치게 하였고 지위 고하에 따라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같이 좀 더 작은 가축을 사용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같이 작은 제물도 사용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곡식 가루로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 작은 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두 랍돈을 바친 과부를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셨다고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눅 21:3)

제가 제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큰 한 가지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자세하고 복잡한 제사의 원리를 정해 놓으셨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이 의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제사의 원리는 죄 사함의 영적인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제사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더불어 속죄함을 위한 제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위해선 나 대신 죽게 될 흠 없는 동물에 안수하고 내 죄가 동물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동물을 죽여 죄 사함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 9:22).

둘째, 자세한 제사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힘 있는 신’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무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세한 제사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이 모든 죄 사함의 복잡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9:28)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화목제물로 표현한 것이 잘 못된 번역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속죄하는 제사의 원리를 배운 후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레위기가 무지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큰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화목제)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셨던 성도님들께도 유튜브 영상과 목사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산책
어스틴한의
장로교회

교회 행사

새가족 환영회

청년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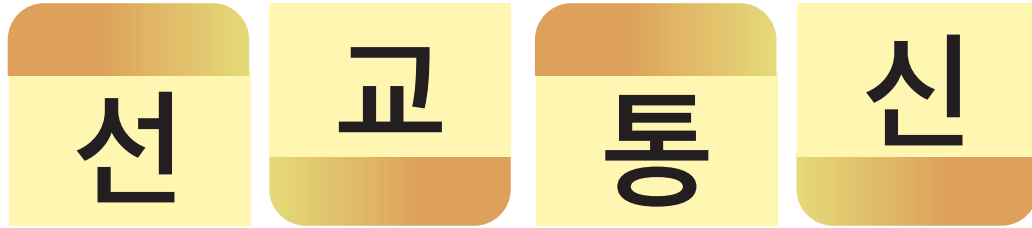
4/3/2022

새가족 환영회는 지난 몇 달간 AKPC 청년부를 처음 방문하시고 정착하시게 된 새가족 분들을 위해 청년부 전체가 모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들이 청년부 및 AKPC와 한 가족이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며,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활동들을 통해 친교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이번 봄 새가족 환영회에서는 스무 명 남짓 되는 새가족 분들에게 청년부의 각종 사역팀들과 동아리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고, 보물찾기를 하며 서로 더 끈끈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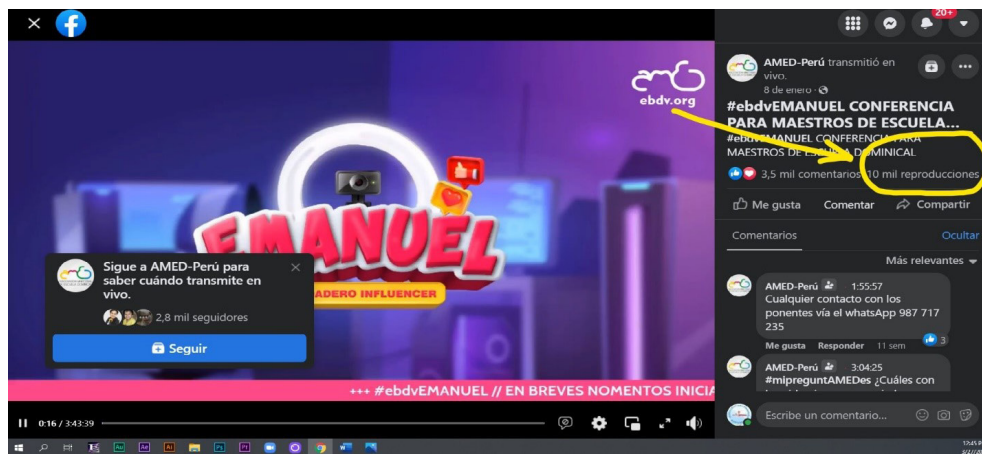
페루 선교

김 성일 & 성숙 선교사

안녕하세요,

기도와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오며 지속적인 사역에 열매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역의 진행과 결과 보고와 함께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https://www.facebook.com/AmedEbdv/> 에 올려진 후 강습회에 지속적인 접속으로 AMED사역이 스페인어권의 주일 학교 교사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ww.ebdv.org를 통하여 자료들도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AMED와 페루 성서공회(Sociedad Biblica Peruana; SBP, <https://sbp.org.pe/>)와 협력관계가 지난 3월 30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BP에서 지난 20년 동안 출판하였던 AMED의 주일학교 교재와 여름 성경학교 교재들을 다시 디자인하여 출판과 보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MED의 자료들이 널리 사용되기를 원하였는데, AMED와 SBP의 동역으로

페루와 스페인어권 나라에 확대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MED는 지난 수개월 동안에 IEPJ교단과 협력하여 신학교의 인터넷 교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강의 비디오(70개)와 오디오와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사용하여 첫 학기의 5개 과목 중에 2과목을 현역 목회자들의 신학적 자질 향상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리마 신학대학교 사역과 코비드로 인하여 지난 9년 동안 갖지 못하였던 안식년을 11개월(2022년 5월 18일 - 2023년 4월 17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후원자들을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고, AMED 사역이 중남미 스페인어권 교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도 제목

- 성실과 겸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되도록
- 페루 성서 공회가 AMED의 교재들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 AMED가 IEPJ목회자 연장교육으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바른 신학과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 안식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이 있도록

2022년 4월 4일

페루에서 김 성일 & 성숙 선교사 올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 교 통 신

태국 선교

이승현, 윤선희 선교사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에스겔 37:4-6)

따뜻한 봄, 또 새롭게 시작하는 5월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매년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고 꽃 피우며 우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난주 에스겔 37장 말씀을 읽으며 에스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고 소망이 없으며 무덤과 같이 멸절된 상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며 결국엔 세상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며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영이 메말라가고 때론 죽은 듯 낙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니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열방을 향한 대언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지 태국에서 계속 태국어 공부 중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주위 선교사님 가정에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만, 이곳도 한국과 같이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저희는 이** 선교사님의 은혜와 평강 교회에 출석하여 태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 이승현 선교사는 은혜와 평강 교회와 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레이스 풀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승현 선교사는 한국어로 설교하고 담임이신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통역해 주셨는데, 저희도 태국어에 능통해져서 태국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태국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또한 태국 민족가운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4월 고난 주간에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정탐을 미루다가 태국의 동북부 지역 이싼의 두 도시, 쾅켄과 코랏을 정탐하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쾅켄, 코랏(나콘 랏차씨마), 피싸눌룩으로 1,600km를 차로 운전하여 다녀왔는데 태국은 땅이 참 넓고 인도에 비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배종원 선교사님(쾅켄 1호 선교사), 서보훈 선교사님(코랏 1호 선교사) 두 가정을 만나 교제하면서 두 도시의 특징과 선교 상황을 들었습니다.

특히 코랏의 서보훈 선교사님은 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 중 어려운 점들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선교지로서 척박한 태국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길 소망하였습니다.

태국에 선교사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지만, 태국 동북부 이싼 지역과 남부지역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1% 미만이고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태국어 공부의 시기이지만 태국 동북부와 남부 지역 정탐을 몇 차례 더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여름은 무덥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 매일 42도 이상의 뜨거운 날씨입니다. 가만히 앉아 숨 쉬는 것도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인도 성도들을 움직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오릿사 지역의 러하빠라 교회는 부활주일 전날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러하빠라 교

회 성도들은 교회의 2년 치 헌금 50,000루피(한화 83만 원)를 가지고 선교사의 도움 없이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 처소를 지어 하나님께 헌당하였습니다.

바닥의 흙을 돋우고, 슬레이트 지붕에 유리 창문도 없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예배당이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깊이 느껴집니다.

부활절에는 러하빠라 교회 성도 2명과 찰디아 교회 성도 4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함께 사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저희 가정은 2년 여 코로나 시간과 맞물려, 안식년과 선교지 변경의 큰 변화를 이곳 태국에서 겪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물으며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듯이 나아갔습니다.



를 이곳 태국에서 겪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물으며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듯이 나아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욥 23:10),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14절)"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음 달 6월 초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혹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담아 2022년 5월 1일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희(예진, 하진) 올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오릿사 러하빠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세례 받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2. 인도 7 교회 목회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를
3. 윤선희 선교사와 하진이,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 연장이 5월에 잘 이루어지기를
4. 저희 부부가 태국어 습득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한국 방문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동역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한 기도와 후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920-193076-131 (G M S)

우리은행 165-08-271938 (이승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에티오피아 선교

김명환, 남희수 선교사

주후 2022년 4월 7일

동역자님,

데흐나 나츠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할렐루야! 3월 25일 공식적인 종전 선언으로 다시 평화가 찾아온 이디오피아에서 문안 드립니다. 실로 참 많은 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3월 말 이곳 땅을 다시 밟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 뒤편에 죄송스러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작년 말 갑작스러운 남희수 선교사 모친의 장례와 직후 터진 내전으로 인해 사역이 본의 아니게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장 동역자들은 나름대로 일을 해놓았습니다. 에피손은 사사기와 읍기를 번역했고, 요셉은 룻기를 번역했으며 또한 이미 번역된 시편 출판에 필요한 철자법, 구두점, 페이지 번호, 문단 나누기 등의 조판 과정을 끝냈습니다.

김선교사와 세 명의 동역자는 지난주 여호수아의 자체점검을 마쳤고, 이번주에는 사사기를 자체점검 하고 있는데 다음주 초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룻기의 자체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밀린 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평소보단 일찍 시작하고 늦게 일을 끝내지만 다들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자체점검된 책들이 속히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점검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인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문위원점검이지만 점검위원들 숫자가 수요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대기시간이 참 깁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 출간하려고 했던 시편을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전) 출간해서 마장부족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더 돌 뿐 아니라 이미 봉헌된 신약성경과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선교사는 지난 12월에 목회 상담학 박사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상담 사역은 이곳 지도자와 의논 후 준비과정을 거쳐 6월쯤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본이 (루디아)와 예담이 (소피아)가 사회인과 대학생으로 직장 and 학교에서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신앙

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올(이곳은 24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수 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처럼, 마장 부족을 향한 구약성경이 비록 잠시 내전과 장례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거쳤지만 재개되는 '부활'의 환희를 경험하듯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귀한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이만 기도 편지를 줄입니다.

마장어 구약의 봉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김명환, 남화수, 예본, 예담 선교사 가정 올림

이디오피아: PO Box 313/1033, Ayer Tena, AA,
ETHIOPIA 251-911331059

본부 (후원): WBT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 800) 993-5433

전자우편

james_kim@sil.org

wha-shu_kim@sil.org

majang1998 (카톡 id)



Mission Nicaragua

June 2022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3동의 교실 완공)

스콜현상(Squall), 요즘 니카라과는 우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콜현상과 같이 장대비가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습도가 함께 동반되어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3분의 니카라과 선교 동역자님들의 도움으로 3개의 교실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려운시기에도 건축에 도움을 주신 선교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차 Cancha (미니 축구장, 농구장) 완공**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 후원을 받아 간차 공사가 2022년 3월초에 완공되어 라마나웃 학생들 모두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후원해 주신 교회는 코로나상황에서 "교인들이 집안에



(간차 Cancha (미니 축구장, 농구장) 완공)

만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 함께 걷자"는 프로젝트로 걸음 수에 따라 선교지를 돕는 컨셉으로 모금된 선교헌금을 저희 니카라과 라마나웃 스쿨의 꼭 필요했던 간차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셨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 하며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4인조 강**



(4인조 강도를 당함)



(Día del Niño, 어린이날 행사)

도를 당함, 올해로 니카라과 선교가 13 년이 되었습니다. 13 년동안 처음으로 4 인조 강도를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학교는 아직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한끼를 해결하기 힘든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학용품, 교복, 체육복 그리고 학교 비품 전부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스페인어로 **Todo se limpio a fondo** (모든 것을 청소해 가다.) 정말 학교의 모든 것을 훔쳐 가버렸습니다. 4 인조 강도를 당하고 몇주간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니카라과 선교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어린이날에 솜사탕과 팝콘)



(Día de la Madre, 어머니날 행사)

동안 니카라과 사람들에게 비친 우린, 어떤 선교사이었나! 13 년 니카라과 선교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 인조 강도를 당한 뒤에 몇분의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찾아와 위로하시면서 선교사님 한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음에 감사하시죠! 그 말씀에 정말 다친 사람이 한명도 없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에도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니카라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헌금해 주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헌금을 모아 어린이날 과 어머니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날에는 놀이기구를 빌리고 팝콘과 솜사탕 기계를 빌려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날엔 그 동안 아이들이 준비한 발표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선물을 통해 참석한 어머니들의 감동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2. 신유선선교사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린후 아직도 기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완쾌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 되어 있는 생명수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4. 니카라과에 평안이 임하고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니카라과 선교사 김인선 신유선, 하민, 영민 드림

revkimisun@gmail.com

목장별 후원 선교사

목장	목자 / 목녀	후원 선교사	선교지
가나	지정민 / 지정란	김익수	북한(홍콩)
가나안	김중호 / 김효진	서정옥	탄자니아
가데스	손성태 / 손인숙	장성규	캄보디아
가버나움	김상보 / 김지현	이철우	말레이시아
갈릴리	김문석 / 김선아	윤미경	러시아
갈보리	림형진 / 림성민	한준수, 이옥희	태국
골로새	이성신 / 이숙영	고광문	볼리비아
기브온	손종래 / 손영주	송진영	짐바브웨
길갈(북)	최병진 / 최영미	장준호	알래스카
길갈(남)	이순회 / 성진원		
나사렛	김광섭 / 김선숙	김인선	나카라과
다메섹	엄두간 / 엄성경	장준호	알래스카
르흐봇	박경일 / 박현영	김종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스바	김상완 / 최영지	조태균, 오현미	알바니아
모리아	박영진 / 전유진	박성원	남아공, 모잠비크
베다니	김우진 / 배한원	김보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들레헴	김주호 / 이가연	김성일	페루
벤엘	조현철 / 이종순	이삭	북한
브니엘	이인권 / 손지영	김명환	이디오피아
빌라델피아	최병호 / 최란조	문현식	짐바브웨
빌립보	정훈민 / 임병숙	이승현	인도
살롬	김성우 / 김정선	오즈(브라질)	어스틴 지역선교
서머나	김영생 / 서인숙	조종화	탈북자
수가	이성민 / 양미경	강명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온	전병훈 / 김윤지	박재구	태국
실로암	민동하 / 배정주	김충환	인도네시아
아가페	김상철 / 최영선	양승록	남아프리카공화국
안디옥	안형태 / 엄경미	김흥규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덴	오세권 / 이연숙	장성규	캄보디아

목장별 후원 선교사

목 장	목자 / 목녀	후원 선교사	선교지
에벤에셀	동지현 / 이찬재	남광우	남아프리카공화국
엔게디	맹주일 / 양민희	박성원	남아공, 모잠비크
엘림	홍석준 / 김소용	김용철	키르키즈스탄
엠마오	임창희	김선웅	브라질
예루살렘	함종원 / 임고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헤브론	김광현 / 김혜은	김대환	남아프리카공화국
호렙	정기석 / 정희진	김종현	남아프리카공화국

AKPC 후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	선교지	목 장
김인선	나카라과	나사렛
박혁식(세계)	베트남	
김명환	이디오피아	브니엘
김성일	페루	베들레헴
한준수	태국	갈보리
한미경	러시아	갈릴리

AKPC 2022년 주요행사 일정표

월	주일	주일 행사	주간 행사	EM & 청년 & 교회학교
4	3	정기당회	입교 및 세례자 문답 (4/9)	
	10	종려주일	성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11-16)	EM CNOW (4/13)
		세례/성찬식	성 금요일예배 (4/15)	EM Good Friday service (4/15)
		목자/목녀반 모임		
	17	부활주일	중보기도 세미나 (4/23)	어린이 교육부 부활절 행사 (4/17, 부서별)
				EM Lifeline (4/20) * CAL 세미나 (4/18-23)
24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4/27)	
			UT AWAKE 종강예배 참가 (잠정) * 청년부 교역자 연장 교육 (4/27-30)	
5	1	어린이 주일 행사		어린이 교육부 어린이 주일 행사 (5/1, 부서별)
		정기당회		CM 가정의 달 부모와 함께하는 무릎기도회 (5/7~28, 4주)
	8	Mother's Day	성경 세미나 (12-15)	EM CNOW (5/11)
		목자/목녀반 모임		
	15	성경 세미나		EM Lifeline (5/18)
				UT College Graduation Ceremonies (5/20-21)
				토요한국학교 종강 (잠정)
22	새가족 환영회 (잠정)		EM Parenting Seminar (5/28)	
29			* 김상범 전도사 안수식 (5/29, 잠정)	
6	5	성령강림주일	여름성경학교 (6/6-10)	어린이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부서별)
		정기당회		
	12	목자/목녀반 모임		교육부/Youth 진급 주일 (Promotion Sunday)
	19	Father's Day	1회 교리산책 (6/25)	
26			청년부 목장모임 방학 (6/26)	
7	3	정기당회		어린이 교육부 Summer Camp AKPC! (7/4-7/22)
	10	목자/목녀반 모임		
	17			
	24			
	31			

* 표시 목회자 일정

AKPC 2022년 주요행사 일정표

월	주일	주일 행사	주간 행사	EM & 청년 & 교회학교
8	7	정기당회	Back to School 특별새벽기도	청년부 리더임명
	14	공천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시작		EM Lifeway Retreat (8/19-21)
		목자/목녀반 모임		청년부 리더 수련회 (8/19-20)
	21			EM Life group Shepherd's Training (8/24)
	28			청년부 목장모임 개학 (8/28)
9	4	정기당회	제자훈련 교역자반 (9개월)	청년부 수련회 (9/2-4)
			2회 문학산책 (9/10)	UT AWAKE 개강예배 참가 (잠정)
			어스틴 지역 추석경로잔치 (9/10)	
	11	선교비전 나눔 (구체적 방안)		청년부 캠퍼스 사역 개시
		목자/목녀반 모임		EM CNOW (9/14)
	18	제작 선출 특별 공동의회	2회 교리산책 (9/24)	EM Lifeline (9/21)
		권사회 주관 교사 위로회(잠정)		CM Coffee Break 성경공부 (10주간, 9/18-11/27)
25			어린이 교육부 가을 운동회 (부서별)	
10	2	정기당회	부흥회 (7-9)	청년부 바이블 스터디 (8주)
			1:1 인도자반 2기 (10/5-11/30)	청년 1:1인도자 양성 (장년 통합)
	9	부흥회		EM CNOW (10/12)
		목자/목녀반 모임		
	16	제작회 #2		EM Lifeline (10/19)
	23	정책당회	임직자 교육 1회 (10/29)	EM Life group Shepherd's Training (10/26)
30	종교개혁주일	임직자 교육 2회 (11/5)	어린이 교육부 Fall Festival (10/29)	
			청년부 새가족 환영회 (10/30) * 교역자 수련회 (11/1-11/3)	
11	6	일광 절약 시간 해제 (Daylight Savings End)	임직자 교육 3회 (11/12)	EM CNOW (11/9)
		정기당회		UT AWAKE 종강예배 참가 (잠정)
	13	목자/목녀반 모임		EM Lifeline (11/16)
		새가족 환영회 (잠정)		CM 크리스마스 슈박스
	20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Break (11/23-26)	EM 청년부 Thanksgiving Dinner (11/19)
27		3회 교리산책 (12/3)		
		성탄트리 장식 (11/30)		
12	4	정기당회	입교 및 세례 교육 (12/10)	
	11	2023년 예산인준 공동의회	입교 및 세례자 문답 (12/17)	청년부 목장 모임 방학 (12/18)
		목자/목녀반 모임		
	18	세례식/성찬식	"성탄 바구니" 나눔 (잠정)	
25	성탄주일 온가족 연합예배	송구영신예배 (12/31)	어린이 교육부 성탄절 행사/선물 증정	
	연합찬양대 성탄칸타타			

* 표시 목회자 일정

지역 광고

Kakao Talk ID: @hanyangmarket Email: austinhanyangmarket@gmail.com



Tel: 512.371.3199 6808 N. Lamar Blvd #A-110 Austin, TX 78752
Fax: 512.371.3250

Tous les Jours

Austin



512-373-8080
6808 N Lamar Blvd Suit B-115 Austin TX 78752
www.tljus.com
tljaustintx@gmail.com

Universal Motors/Services

Asian Imports & Domestic Service Since 1993

David Chong
ASE Certified Technician

24 HR TOWING

A/C Service 7138 Hwy 290 E.
Brakes & Tune Ups Austin, TX 78723
Engines & Transmissions (512) 459-3939

Cuppa Austin Coffee Shop

\$1.00 OFF ANY DRINK

9225 West Parmer Lane
Austin, TX 78717



www.CuppaAustin.com
512-382-6729



A+SM
Dry Cleaners & Alterations

Questions? Comments? Find us on Yelp!

Same Day Service Available
30+ Years Experience

Mon-Fri 7am-6:30pm
Sat 10am-2pm
Sun/ Holidays CLOSED

8701 W Parmer Ln. #2122
Austin, TX 78729
Inside Artisan Apartments

(512) 249-9013



Anne Lee
Sales Agent

Pohl Partners, Inc.
10800 Pecan Park Blvd, Ste 125
Austin, TX 78750
www.pohlpartners.com

c: 224.427.0925
o: 512.335.5577
anne@pohlpartners.com



전 수 중 공인세무사(EA), MBA
명성 세무·교육 LLC
Tel. (646) 525-5900

Hightone Tax & Ed LLC
13800 Lyndhurst St. #135 Austin, TX 78717
smpchun@gmail.com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편집자 주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2022년이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7월도 초반을 지나 이제 완전한 여름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여름이 오면 호불호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저는 호쪽에 붙어 서기로 했습니다. 바꿀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무덤긴 해도 주님 창조하신 여름이라는 날씨를 만끽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조금만 운동해도 땀이 비오듯하니 다이어트에 더없이 탁월한 계절이고 가족, 친구와 함께 BBQ를 즐기기에 맑은 날씨가 있습니다. 또 바깥 뜨거운 태양을 피해 집에서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성경책과 무더운 여름을 함께 한다면 여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다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선교부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지요?

행복행의 연속은 우리들이 삶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행복행... 그러나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주님과 특별한 비밀을 이 겨자씨 지면을 통해 발설하십시오. 여러분의 글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오고 또 지게 될 수많은 계절처럼 겨자씨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원고로 자양분을 얻습니다. 자양분이 없는 나무는 말라버리듯 원고가 없는 겨자씨는 그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고와 또 그 원고를 나누고자하는 사랑과 용기를 기다립니다.

Dear fellow Christian Members of AKPC!

We seek for your original contributions to Mustard seed magazine. Let us build our tree of life in Christ together. Trees never be trees but just withered bush without nutrition. Likewise, Mustard will stay healthy only if the words of gospel and testimony will be supplied continuously. We all know our life is a woven cloth with joy and frustration. Sharing yours with others will strengthen our community with understanding, learning, and prayer. We are waiting for your contribution and your contribution will make a difference. God is good. Please send us your contributio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He is also seeking English editor for the Mustard seed magazine. Please step forward and be a part of all who inspire our church to grow every day.

1.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있습니다. '제목: 문서선교에 관심있습니다' 라고만 해 주시고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2.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원고를 아래의 이메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을 알려드립니다.

3.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 로고"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예수산책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A church that stands on God's Word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 일 예 배	KM 1부 (한/영 동시통역)	주일 오전 8:30
	KM 2부	주일 오전 11:00
	EM(영어회중)	주일 오전 11:00
	청년	주일 오후 1:00
주 중 예 배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오전 6:30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30
	토요무릎기도회	토 오전 6:30
교 회 학 교	영유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CM)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YOUTH)	주일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토 오전 9:45
	갈렘대학	금 오전 10:00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45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7:30
목장모임	매월 1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 Fax 512) 454-6888

www..akpc.org / akpc@akpc.org